

철도공사, 재생에너지 생산 최대치 대비 0.6% 불과

5년 전기요금 2조2천억...영업적자보다 많아
정준호 “서남권 RE100 등 연계 강화 필요”

한국철도공사의 전기요금이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공사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생산 가능 최대치 계획 대비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이 22일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최근 5년 간(2021년~2025년 6월) 납부한 전기요금액은 2조2천199억원에 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생산은 3.1GWh로 생산 가능 최대치 485GWh 대비 0.6%에 그쳤다.

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총 영업 적자는 2조588억원으로 전기요금액 규모보다 적었다. 영업 적자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 비용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조3천100억원이다.

전기요금 요율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올해 7월 기준 납부한 전기요금 요율은 1kWh당 221.6원으로 2021년 대비 61.4% 인상됐다.

현재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전기요금을 약 23% 이상 높게 납부하고 있다. 심야시간 할인을 받지 못하는 데다, 철도공사의 전기요금 단가는 일반기업과 달리 산업용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과의 협이가 필요

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전기요금 절감 방안으로 태양광·풍력발전 등 철도공사의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공사 자체 분석에 의하면 정부와 공사의 활용 가능한 부지와 건물, 주차장, 방음벽, 선로 등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연간 485GWh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철도공사 생산 전기단가 200원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천1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을 철도

운행에 도입하면 연간 124GWh 전기를 생산해 약 26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이 포함된 만큼 철도공사는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서남권 재생에너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체 생산 재생에너지는 철도공사의 적자와 기후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국가 폭력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이 과거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안사구, 관리기준 부재로 훼손...대책 시급

2016년 기준 189개 중 관리지역 6개 뿐
서삼석 “사구 보존·관리 법·제도 정비”

연안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해안사구가 관리 기준 부재로 훼손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변 후면에 쌓여 형성된 언덕으로 폭풍이나 해일 시 어촌을 보호하는 자연 제방 역할을 하고 지하수를 통한 용수 공급 기능도 수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남·무안·신안)이 22일 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내 해안사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 자료는 2017년 연구조사로 이마저도 법정 통계가 아닌 상황이다.

그나마 9년 전인 2016년 기준 국내 해안사구는 189개로 그 중 전반기 58개로 가장 많았다. 이



중인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사구 관리가 부실한 원인으로는 총괄 주무 부처의 부재가 꼽힌다.

해안사구는 환경부,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소관 업무를 맡고 있으나 법령상에 ‘해안사구’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관리사업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국가유산청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2016~2025년 약 351억원을 투입했지만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해안사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전남은 예산 투입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 훼손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2017년 기준 전체 189개 해안사구 중 절반이 넘는 96개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1950년대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당시 사구 면적은 79.4㎢였으나 약 50년이 2016년에는 50.4㎢로 줄어 29㎢(3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정확한 면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남해군에 존재했던 해안사구 2개는 현재 모두 훼손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 해안사구의 82.4%, 동해의 경우 최대 41.9m의 백사장이 사라지는 등 국토 손실 사례도 보고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안사구는 국토 해안선과 배후 지역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물이자 담수 저장소,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보존·관리 지침 마련과 이용 시 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정비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이재명 “전통 발효식품은 소중한 문화유산”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를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개편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공전’이란 식품 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격을 다룬 식약처의 공식 문서를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김치를 초콜릿·코코아 가공품 등과 유사한 ‘농산가공식품류’로 묶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된장·간장·매추 등의 장류를 개량식품



과 통합하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장 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고, 장 담그기 역시 2024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전통 발효식품은 단순한 식자재가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해당 개편안은 용역 연구 진행 단계에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 기자

문인 북구청장 “연내 사퇴 후 광주시장 출마”

“광주시 재정 건전성 회복 급선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올해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다.

문 북구청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연말 안에 (공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북구청장은 “10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고민하기도 했으나, 내년도 국비 확보가 중요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국비 확보 작업을 잘 마무리한 후 출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선거사무소는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상무지구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세부적인 (정책과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북구청장은 사퇴 이후 구정 공백 우려에 대해 “국·과장 등 조직이 안정돼 있어 시스템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북구청장은 광주시 최우선 현안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꼽았다. 그는 “현재 부채 비율이 24% 수준으로 25%를 넘기면 ‘재정 주의’ 단계에 들어가 지방재정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영광 출신인 문 북구청장은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광주시 기획조정실장·행정부시장,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선 북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현직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인 북구청장, 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지역본부장, 이형석 전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은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